

## 월요광장

## 왕래가 통일의 열쇠다

김하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년이 저물어가던 1999년 어느 봄날, 나는 베를린의 오스트 반호프(Ost Bahnhof)를 출발하여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를 향해 달리는 기차 안에 있었다. 약 7시간 걸리는 철마 안에서 차창을 통해 바라보던 구동 독지역과 폴란드의 이국적 풍경은 여행의 설레임보다는 임무의 중압감과 함께 신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더해주었다.

그 무렵은 1980년대에 시작된 사회주의 붕괴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럽의 동부지역은 체제 전환의 물살을 막고 있는 시기였다. 당시 법무부 검사였던 내가 그 기차를 타게 된 것은 사회주의 붕괴의 현장을 직접 들여보고, 통일후 북한의 체제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목적이 있었다.

동유럽 민주화의 서곡을 울렸던 폴란드의 자유노조운동, 갑작적인 독일의 통일, 철의 장막 소련의 허망한 붕괴, 그밖에 체코·헝가리·루마니아·유고슬라비아 등 동구 제국의

체제 개혁은 역사의 신이 새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지나간 천년을 결산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대학생으로 지켜온 나는 검사가 된 이후에도 정권을 잡기 위해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치 군인과 이들에게 머리를 빌려주고 기생하는 소수의 정치 관료보다 나쁜 국가지도자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베를린 동부지역에서 시작된 사회주의 국가로의 기차 여행은 나의 이러한 생각을 단번에 훌훌 놓았다.

페잔국 독일에게 강요된 새로운 국경선인 오데르·나이세 강을 건너면서 시작된 창밖의 희색빛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어두움을 더해갔다. 불과 몇분 전에 떠나온 베를린의 화사한 불빛은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어느덧 짙었지만 변해있었다. 널따란 농지 가운데 이따금씩 나타나는 무채색 농가들의 조각난 모습은 마치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하였다.

그 때 나는 처음으로 양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탈취한 반란군 못지않게 나쁜 정치지도자가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인데, 강남에 저편과는 너무나 다르게 전체 인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세상을 온통 짙었지만 물들여 버린 정치 체제를 선택한 사회주의 국가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그러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이러한 나의 생각에 확신을 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2000년 봄 대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북경을 거쳐 평양의 순안공항에 도착한 나는 다시 군용프로펠러기 AN2를 타고 함흥으로 날아갔다. 그곳에서도 7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이동한 끝에 겨우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버스 안에서 바라본 북한의 풍경은 한마디로 충격적이었다. 뺨감과 식량을 얻기 위한 무분별한 벌목과 개간으로 북한의 산들은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동산이 되어 있었다. 마을을 지나갈 때면 검고 퇴색한 듯 차림으로 헛볕을 쬐며 도로변에 삼삼오오 서 있는 북한 주민들의 무표정한 모습들은 마치 청동으로 만든 조각상처럼 어둡고 무거워 보였다.

모여있는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남루한 모습이었다. 그때 나는 북한의 지도자는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하였던 정치군인 못지 않게 나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북한이 소련인들을 위해 지었다는 영빈관에서 1박을 하였다. 말만 영빈관이었지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전등은 촛불보다 어두웠다. 당시에도 북한은 식량난보다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었다. 방문자의 접대도 이러한 진태 북한 주민들의 처지는 어떠할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그들은 이미 100년 전부터 국가의 폭정과 수탈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35년의 일제 식민통치와 68년의 공산 독재 치하에서 논밭을 빼앗기고, 배급된 식량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왔던 것이다. 식량은 자연의 산물일 뿐이므로 굶어 죽는 것도 자연이 가져온 재해이고, 그것이 감히 지도자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들은 조상대대로 아직 국가의 주인이 되어 본 경험에 없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저런 생각으로 뒤적이며 나는 동구권 사회주의체제가 모두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못한 북한체제가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를 숙고해 보았다. 한마디로 북한 주민들은 해방 이후에도 이씨가 단지 김씨로 바뀐 조선왕조의 연장선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나라의 주인임을 깨닫기 전에는 북한체제는 조선왕조처럼 계속 굴러갈 것이다.

외세의 개입이 없는 한, 평화통일의 실마리는 북한 주민들의 주권의식에 대한 개안에 있다. 주권의식에 대한 개안은 북한 주민에게 자유의 공기를 무한히 주입시켜야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왕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결국 왕래가 조국통일의 열쇠인 것이다. 이런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 법조칼럼

## 영상녹화조사에 대한 단상

이주용  
광주지검 형사3부 검사

지난주 금요일 오후 필자 검사실을 찾은 대덕중학교 학생들이 방문했다. 학생들이 검사실에 방문해 가장 최고의 관심을 보였던 곳은 영상녹화조사실이었다. 학생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진술한 모습이 활용되는 모습에 흥미로워 하고, “여기서 한 번 활용되면 나중에 거짓말도 못하겠네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에서는 지난 2008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2007년부터 일선 검찰청에 영상녹화실을 확대설치해 최후의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새로 운 수사패러다임을 정립하고자 했다.

영상녹화조사란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과정을 녹음, 녹화하는 것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자, 피조사자의 발언내용, 피조사자의 얼굴 표정과 행동, 조사실의 모습 등을

생생히 녹음, 녹화하는 조사방식이다. 과거 수사기관의 전통적인 조사방식은 소위 ‘조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조서는 조사자가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 내용과 답을 서류에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 날인을 받는 것이다. 조서를 작성할 경우 모든 대화 내용을 조서에 기재할 수가 없어 결국 조사자의 주관이 들어간 문답 내용이 기재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조서를 꾸민다’는 표현이 통용됐다. 결국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여전히 증거능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증거치료로서는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검사는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기록을 수차례 검토하고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에게 질문을 해 어렵게 구성요건 및 구성요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진술을 받아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서명, 날인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앞의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검사의 치밀한 수사에 피의자와 참고인이 승복하고 진술을 한 것인지, 검사의 강압에 의하여 나오게 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치료가 없어 아무리 조서를 생동감 있게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조서의 증거치료는 법정진술에 의하여 무용지물이 되고, 검사의 피나는 노력은 물거품

처럼 사라지게 됐다.

이에 검찰에서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일부 경찰청에서 영상녹화조사실을 구비, 시범실시에 들어갔고, 2008년 형사소송법에 영상녹화조사가 명문화되면서 규정됐으며, 그로 인하여 전국 검찰청에 770개 이상의 영상녹화실을 구비해 영상녹화조사를 확대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위와 같은 노력을 하여 생성된 영상녹화물을 실제 재판에서 과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앞서 장중대역 중학교 학생들이 검사실을 견학하고 느낀 바와는 전혀 다르게 대우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녹화물 또는 그에 대한 녹취록은 단지 조서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0도1755 등) 역시

영상녹화물 자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단지 영상녹화 당시에 그 자리에서 작성하여 서명날인된 속기록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영상녹화실을 설치했고, 검찰에서는 영상녹화조사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조사방식을 개발했지만, 앞의 방식에 가장 부합하는 영상녹화물 자체를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다면 결국 영상녹화를 하면서 과거의 수사방법인 조서도 이중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검사들에게 이중의 업무만 부과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고, 속기사 확충이라는 예산 문제도 발생하게 될 것을 판단된다.

결국 현재의 형사소송법 조항과 같이 형사사법체계가 운영이 되다 보니 일반 국민 역시, 자신들이 경험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서 진술을 하고, 검찰에서 진술을 하였을 때도 또 다시 같은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검사가 단지 수사기관이 아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국민의 권리성, 인권보장 가능성, 국민의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제고 등을 고려하여 영상녹화물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입법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다.

## 기고

## ‘오월 광주’ 체험활동을 마치고

최민환  
광주제일고 교사

광주의 시민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의 슬픈 역사가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나는 어려서부터 5·18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더욱이 친척 어르신 중에 5·18 관련 희생자가 있었기에 자라면서 많이 공부했고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가장의 달은 외치는 5월, 하지만 매년 5월이 되면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이다. 학창시절, 봉사활동 시간의 대부분을 망월동 5·18 기념 묘역에서 보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정치적 자의식이 성립되었던 것

같다.

그랬기에 이번에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한 ‘오월 광주’라는 체험활동은 누구보다도 우리 광주제일고 학생들에게 뜻 깊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자청해서 인솔교사 역할을 맡았다.

대한민국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의 전통명문 광주제일고의 교사로서, 광주의 시민으로서 학생들이 광주 5월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또래 친구들에게 이를 전달해 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또한 이번 체험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이 단지 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위해서가 아니라 5·18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아는 지식을 동원해 설명해 주려 애썼다.

극단 토박이의 ‘마중’이라는 연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과 그 후손들의 현재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교육적이었다. 5·18 희생자와 유족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기에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5·18 국립묘지 입구에 있는 주먹밥 카페 ‘오월’에서는 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시민군들을 위해 만들어 주었던 ‘주먹밥’의 상징적인 의미를 되새기며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국화 조화를 만드는 시간이었는데, 종이 국화꽃 한 송이, 한 송이를 만드는 아이들의 정성이 온몸으로 느껴졌고, 그 국화꽃으로 5·18 희생자들에게 참배를 드리는 학생들의 모습을 뛰듯하게 지켜보았다.

2013년 5월17일, 다른 일반 학생들에게는 단지 3일 연휴 중 첫째 날, 혹은 석가탄신일 정도로 생각했지만 나와 함께 이번 ‘오월 광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이

날이 자신의 민주주의적 폐려다임에 대해 재조명할 수 있었던 날로 기억되길 바란다. 그와 동시에 우리 광주의 아들로서 장차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어떻게 혼내나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길 희망한다.

나는 생활교사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자랑스러운 광주의 아들이다. 또 다른 우리의 아들인 학생들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알고, 느끼고, 피부로 접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살아있는 교육이 아닐겠는가?

이번 ‘오월 광주’와 같은 체험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광주의 학생들이 더 나은 광주 시민으로 자라 날 수 있길 희망한다.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社說

## 박근혜 정부도 ‘수도권 공화국’ 만들 건가

수도권 규제 완화 속에 지난 10년간 수도권에 사람과 투자가 몰리는 ‘수도권 집중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관련 예산과 기업 투자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경제기반이 약화된 광주·전남지역은 살기가 더 버거워진 것이다.

그럼에도 벽 정부가 이를 다시 주거 들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지방 죽이기’나 다른 바 없다. 경제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광주·전남의 경우 기존 공장이나 내려온 계획으로 있는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틀타 수도권으로 ‘U턴’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가 초조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무엇보다 수도권 규제 완화 철학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현재 10%에서 50.3%로, 연구개발투자비 집중비율을 61%에서 64.3%로 늘었다. 이 수치는 사람과 기업의 투자, 연구개발투자비가 수도권으로 집중돼 일자리 수도권으로는 수도권으로 집중돼 일자리로 수도권에 흘러온 현상을 말해 준다.

둔제는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산업 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등 수도권 규제 관련법은 이명박 정권에서도 수차례 수정하려 했다가 비수도권의 반대에 부딪쳐 좌초된 바 있다.

그럼에도 벽 정부가 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취업자 수와 인구, 연구개발 투자비 등을 토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비율은 49.3%로, 2002년의 47.15%에 비해 2.15%나 심화됐다.

또 같은 기간 취업자 수 집중비율은 47.1%에서 50.3%로, 연구개발투자비 집중비율은 61%에서 64.3%로 늘었다. 이 수치는 사람과 기업의 투자, 연구개발투자비가 수도권으로 집중돼 일자리 수도권으로는 수도권으로 흘러온 현상을 말해 준다.

경찰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흥보전에 열을 올리는 사이, 범죄가 늘어났다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의 결과로 할 수 있다. 소리없이 범죄자를 색출하고, 예방에 전념해야 하는 게 경찰의 본분이 아닌가.

경찰이 앞으로도 4대악 근절을 위한 경찰은 예외적으로 4대악 근절을 위해 모두 5775만 원의 흥보예산을 책정, 사용했다고 한다. 이처럼 경찰의 전례없는 흥보 활동에도 거꾸로 살인과 성범죄 등 강력 범죄가 늘어나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그런 데도, 일부 지역에서는 데려온 범죄가 늘어나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빙수처럼 소란을 떨게 아니라 치안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쌓는 것만이 경찰의 기본 임무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 산하 5개 경찰서는 4대악 관련 범죄방지방과 근절을 위해 모두 5775만 원의 흥보예산을 책정, 사용했다고 한다. 이처럼 경찰의 전례없는 흥보 활동에도 거꾸로 살인과 성범죄 등 강력 범죄가 늘어나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빙수처럼 소란을 떨게 아니라 치안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쌓는 것만이 경찰의 기본 임무임을